

# 선교사 프레더릭 S. 밀러(Frederick S. Miller)의 한국시가론\*

김 승 우\*\*

1. 서론
2. 한국시가 연구의 목적과 대상
3. 밀러의 한국시가 양식론
4.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 한국에서 활동했던 미국인 선교사 프레더릭 S. 밀러(Frederick Scheiblin Miller, 민로아(閔老雅))[1866-1937]의 한국시가(韓國詩歌) 관련 논의를 분석하고 그 연구사적 의의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한국어 찬송가를 보급하는 데 관심을 가졌던 밀러는 한국인의 정서와 율격 의식에 맞는 노랫말을 지어내기 위해 한국시가의 주요 사례를 찾아내고 그 특질을 분석하는 데 착수한다. 그보다 몇 년 앞서 한국시가를 고찰했던 제임스 게일이나 호머 헐버트 등이 시조(時調)에 주목했던 데 비해, 밀러는 가사(歌辭)를 한국시가의 대표적 양식으로 제시하는데, 이

---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7-361-AL0013).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K 한국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는 작품 안에서 모종의 스토리가 전개되는 가사가 단형의 시조에 비해 서구적 의미의 시(poetry) 개념에 조금 더 부합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추정된다.

밀러는 구(句)가 연결되어 행(行)으로, 행이 다시 연결되어 의절(意節)로 확대되는 가사의 구성 원리를 별도의 참고 자료 없이 직관적으로 분석해 내었다. 아울러 그는 한국시가의 율격 구조를 강·약 음절이 한 차례씩 교차되는 '강약격'이자, 그러한 율각(律脚)이 매 구 네 번 반복되는 '사보격(四步格)'이라 개념화하기도 하였다.

밀러의 한국시가 연구는 한국어 찬송가를 지어내는 데 참고로 삼으려는 실무적 목적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해 나갈 만한 추동력을 당초부터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를 한국시가의 대표적 갈래로 부각해 낸 점이나, 한국시가의 구성 원리와 요소를 정교하게 탐구하였던 점, 한국시가의 율격 구조를 처음으로 논리화하였던 점 등은 게일이나 헐버트의 저술에서는 간취되지 않는 또 다른 측면의 중요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프레더릭 밀러(Frederick S. Miller), 한국시가, 선교사, 가사, 찬송가, 율격, 제임스 게일(James. S. Gale), 호머 헐버트(Homer B. Hulbert)

## 1. 서론

본고는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 한국에서 활동했던 미국인 선교사 프레더릭 S. 밀러(Frederick Scheiblin Miller, 민로아(閔老雅))[1866-1937]의 한국시가(韓國詩歌) 관련 논의를 분석하고 그 연구사적 의의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이 시기의 서양인, 특히 선교사들의 한국문화 관련 저작에 대해서는 근래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자료들도 속속 발굴·소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 분야에서 가장 왕성하게 저술 활동을 펼쳤던 제임스 게일(James Scarth Gale, 기일(奇一))[1863-1937]의 각종 업적에 관해서는 이미 적지 않은 연구 성과가 제출되었으며,<sup>1)</sup> 최근에는 호머 헐버트(Homer Bezaleel Hulbert, 흘법(訖法), 할보(轄甫))[1863-1949]의 한국문학론 역시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기도 하다.<sup>2)</sup>

이들 선교사의 저작은 우선 전환기 한국문학의 제현상에 관한 각종 증언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차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또한 그들이 도출해 낸 한국문학의 제반 특성이 해외로 소개되면서 서구인들 사이에 한국문학에 대한 인상을 만들어 나갔기 때문에 그 과정을 면밀히 살필

- 
- 1) 그간 제임스 게일에 관한 국문학계의 연구는 게일의 고소설 번역, 특히 「구운몽(九雲夢)」 영역본에 대한 고찰이 주종을 이루어 오다가 근래 이상현, 「제임스 게일(James Scarth Gale)의 한국학 연구와 고전서사의 번역: 게일 한국학 단행본 출판의 변모와 필기, 야담, 고소설의 번역」,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9에 이르러 그의 한국학 관련 저작들이 시기별, 분야별로 종합적으로 검토됨으로써 게일 연구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다만, 이상현의 논의는 시기상으로는 1913년 이후, 분야로는 필기·야담·고소설 관련 저작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김승우, 「한국詩歌에 대한 구한말 서양인들의 고찰과 인식: James Scarth Gale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64호, 민족어문학회, 2011a에서는 1890-1910년대 주로 이루어진 시가 관련 저술에 주목하여 해당 자료들을 분석하고 그 의의를 도출하였다. 이밖에 최근까지 이루어진 게일 관련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이상현, 앞의 논문, 1-12쪽; 김승우, 앞의 논문, 8쪽에서 정리된 바 있다.
  - 2) 헐버트는 베텔(Ernest T. Bethell, 裴說)[1872-1909]과 더불어 한국에 대단히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던 서양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때문에 헐버트에 대한 연구 역시 대개 헤이그 밀사 활동을 비롯한 그의 정치적 행적이나 선교 및 교육 사업에 치중되어 왔으며, 헐버트의 한국문학 관련 소문들은 최근에만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김승우, 「구한말 선교사 호머 헐버트(Homer B. Hulbert)의 한국시가 인식」, 『한국시가연구』 31집, 한국시가학회, 2011b; 「호머 헐버트(Homer B. Hulbert)의 「아리랑」 논의에 대한 분석적 고찰」, 『비교한국학』 20권 2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2; 오운선, 「근대초기 한국설화 영역자들의 번역태도 연구: Allen, Griffis, Hulbert, Carpenter를 중심으로」, 『동화와 번역』 23집, 건국대 동화와번역연구소, 2012 등. 김승우의 두 논문에서는 한국시가 또는 「아리랑」 등 한국가악에 대한 헐버트의 고찰과 분석이 담긴 저술들을 발굴하여 논의하였으며, 오운선의 논문에서는 헐버트를 비롯한 서구인들이 한국설화집을 영역하면서 전래 설화의 한국적 배경과 내용을 환상화하거나 서양의 사상(事象)으로 바꾸어 서구에 소개하였던 과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시가와 관련된 고찰은 흔히 한국문학 전반에 대한 평가나 인식으로 직결되곤 하였으므로 이 분야의 글들을 발굴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더욱 필요하다.

바로 그 같은 측면에서 주목되는 또 한 명의 선교사가 바로 프레더릭 S. 밀러이다. 밀러는 비록 게일이나 헐버트처럼 본격적으로 한국문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지 못했고 해당 분야로 특화된 글들도 그다지 남기지 않았으나,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주요하게 거론될 만한 인물이다.

우선, 밀러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한국문학, 특히 한국시가의 본체를 탐구하였다는 점이다. 한국에 체류하던 수십 년 동안 밀러가 비상한 관심을 두었던 분야는 한국어 찬송가를 짓고 보급하는 일이었거니와, 그는 영어로 된 찬송가를 단지 축자적으로 번역하거나 변안해 오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인의 정서와 율격 의식에 맞는 노랫말을 새로 지어 내기 위해 노력한다. 그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시도된 그의 한국시가론은 특히 형태적 측면에서 매우 세부적인 분석으로까지 진전되므로, 그 결과물을 살핌으로써 여러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 고유의 시가 또는 율문을 찾아보려는 노력은 밀러 이전에 이미 게일과 헐버트 등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었으며, 그들이 천착했던 양식은 대개 시조(時調)였고 거기에 간혹 잡가(雜歌)나 민요를 섞어서 분석 대상으로 삼았던 데 반해, 밀러가 한국시가의 전범으로 포착했던 양식은 가사(歌辭)였다는 점이다. 이렇듯 한국시가의 주요 양식을 다르게 잡아 나갔던 이유가 무엇인지, 즉 밀러가 굳이 가사에 주목했던 배경이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내역들을 ‘한국시가 연구의 목적과 대상’ 및 ‘밀러의 한국시가 양식론’의 두 단계로 나누어 이하에서 상론해 나가고자 한다.<sup>3)</sup>

---

3) 이 논문은 19세기 말-20세기 초 한국에서 활동했던 서양 선교사들의 한국시가관 내지 한국문학관을 검토하기 위한 일련의 기획 가운데 하나이다. 기 발표된 필자의 논문(2011a; 2011b)에서는 제임스 게일 및 호머 헐버트가 한국시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배경과 그들의 고찰 내용에 주안을 두어 단계적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던 바, 본 논문에서도 그와 같은 순서에 준하여 ‘한국시가 연구의 목적

## 2. 한국시가 연구의 목적과 대상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출신인 밀러는 1892년 20대 중반의 나이에 장로교 해외 선교사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와 서울에서 약 5년간 교육사업에, 이후 10년간 전도사업에 종사한 후 1905년 이래 청주에 거주하면서 각종 선교활동을 펼친다.<sup>4)</sup> 그는 한국인 신도들의 상황이나 처지를 이해하고자 항상 노력하였고, 특히 문서를 통한 선교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흔히 '소책자의 사도[Apostle of the Sheet Tract]'로 불리었다고 전한다. 다수의 전도 책자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보급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선교 경험이 담긴 글들을 여럿 작성하여 발표하고 후일 몇 권의 책으로 묶어 내기도 했을 만큼 그는 저술가로서도 왕성하게 활동하였던 것이다.<sup>5)</sup>

밀러가 한국시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배경은, 그가 세상을 떠난 직후 행장(行狀)의 형식으로 지은 해리 로즈(Harry A. Rhodes)의 다음 연

---

과 대상과 '밀러의 한국시가 양식론'의 차례로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택함으로써 한국시가를 검토하였던 세 선교사의 특징적 부면이 상호 대비되면서 보다 부각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시가 연구의 목적과 대상'을 별도의 장으로 특화하여 자세히 서술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편, 게일, 헐버트, 밀러 이외에 이 시기의 또 다른 선교사가 한국시가에 관한 저술을 남겼는지 여부는 뚜렷하지 않으나, 그러했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서 지속적으로 자료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해당 자료가 발견될 경우 그에 대한 각론 차원의 검토를 추가로 진행한 후, 게일, 헐버트, 밀러를 비롯한 서구 선교사들의 한국시가를 사안별로 비교하고 그들의 견해가 지니는 의의를 종합적으로 조명하는 논문을 추후 제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우선 밀러의 한국시가를 상론하는 데 초점을 둔다.

- 4) 밀러의 생애에 대해서는 이용민, 「선교사 Frederick S. Miller(閔老雅, 1866-1937) 연구: *The Korea Mission Fields*를 중심으로」, 『교회사학』 5권 1호, 한국기독교회사학회, 2006, 239-263쪽에서 자세히 검토되었으며, 본고에서도 밀러의 활동에 관한 연대기적 서술은 주로 이 논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 5) 밀러의 글은 세 권의 책으로 묶여 미국에서 출간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위의 논문, 24쪽.] 이 가운데 두 권의 서지는 다음과 같다: Frederick S. Miller, *Our Korean Friends*,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35; *The Gospel in Korea*,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39. 그밖에 'Korean Young People'이라는 제목의 책이 생전에 한 권 더 출간되었다고 하는데, 이 책의 구체적인 서지사항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술로부터 되짚어 볼 수 있다.

[한국에 들어온] 초기에 밀러는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도 부르고 있는 다수의 찬송가를 번역하였다. 밀러가 음악가였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운율을 이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시인의 재능도 지니고 있었다. 아마도 그는 한국에서 활동한 선교사들 가운데 복음서와 전도서를 가장 많이 번역하고 배포하였을 것이다.<sup>6)</sup>

처음 한국에 들어온 후 그가 주력했던 사업은 찬송가를 번역하는 것이었으며, 그러한 사업을 감당할 만큼 밀러는 음악과 시에 대해 깊은 조예를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위 글로부터 간취할 수 있다. 밀러가 한국시가를 고찰하였다면 그 목적도 역시 찬송가 번역 내지 제작과 관련을 지니리라는 점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그는 한국에 체류한 지 약 10년이 흐른 시점인 1903년 10월에 「한 편의 한국시(A Korean Poem)」라는 에세이를 『코리아 리뷰(The Korea Review)』에 게재하기에 이르는데,<sup>7)</sup> 사실상 이 글에 한국시가의 주요 특성에 관한 밀러의 분석이 대부분 집약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먼저 「한 편의 한국시」가 게재되던 무렵의 대략적인 상황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로 된 기독교 찬송가집이 발간되기 시작한 것은 1892년 북감리교에서 『찬미가』를, 1894년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가 『찬양가』를 각각 출간하면서부터이며, 이어 1895년에는 북장로교에서 『찬성시』를 따로 발간해 내기도 한다.<sup>8)</sup> 이처럼 수종의 찬송가집을 통해 한국에 본격적으로 찬송가가 유포되기 시작한 것은 1890

6) Harry A. Rhodes, "Rev. Frederick S. Miller: 1866-1937," *The Korea Mission Field*, Seoul: Christian Literature Soc. of Korea, Nov. 1937, p. 240.

7) Frederick S. Miller, "A Korean Poem," *The Korea Review*, Seoul: Methodist Publishing House, Oct. 1903, pp. 433-438.

8) 초기 찬송가집과 관련된 사항은 민경배, 『한국교회 찬송가사』, 연세대 출판부, 1997, 25-60쪽; 문옥배, 『한국 찬송가 100년사』, 예술, 2002, 39-163쪽에서 조사 및 논의된 바에 의거하여 서술한다.

년대 중반에 들어서이며, 그만큼 찬송가를 제작하고 보급하는 데 선교사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시기도 바로 이 무렵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더구나 밀러는 자신이 직접 한국어로 찬송가를 짓기도 하였기 때문에 더욱 더 이 분야에 깊이 천착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그의 작으로 전하는 찬송가는 총 다섯 편으로, 그 제작 시기를 보면 이 가운데 네 편이 1901, 1902년 사이의 2년 동안에 몰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sup>9)</sup> 것처럼 찬송가 제작자로서 왕성하게 활동했던 이 무렵에 밀러는 「한 편의 한국시」를 발표함으로써 자신이 파악한 한국시가의 특징을 동료 선교사들에게 설명하는 한편 한국어 찬송가를 짓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상황은 이 에세이가 발표된 지 30년 가까이 지나 그가 회고 형식으로 작성했던 또 다른 글, 즉 「초기 한국의 찬송가(Early Korean Hymnology)」에서도 확인된다.

[당시] 찬송가 제작자들 가운데 몇몇은 [찬송가를 짓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 한국시가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수사법(修辭法), 한국시에서 각운(脚韻) 대신 쓰이는 대구(對句), 두운(頭韻), 후렴구에 대해 기록을 하였는데, [시구에] 각운을 두는 것은 한국어에서는 가능하지가 않다. 찬송가 제작자들은 [기존의 영어나 중국어 찬송가를] 번역하는 것보다는 한국어로 독창적인 찬송가를 짓는 것을 흔히 선호하였다.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고, 한국인 교인들이 지은 것들도 그 성공적인 사례에 포함된다.<sup>10)</sup>

밀러와 교인들은 한국어로 찬송가를 짓는 데 시사를 얻고자 한국시가

---

9) 밀러가 지은 찬송가 내역은 다음과 같다: 294장 「친애한 이 죽으니」[1898]; 307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1901]; 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1901];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1902]; 516장 「맘 가난한 사람」[1902]. [이용민, 앞의 논문, 239쪽.]

10) Frederick S. Miller, "Early Korean Hymnology," *The Korea Mission Field*, Seoul: Christian Literature Soc. of Korea, Sep. 1930, p.190.

의 제반 특성을 고찰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이 위 글 속에 뚜렷이 표명되고 있다. 당시 그들이 연구 대상으로 삼았던 한국시가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밀러 이외에 다른 어떤 선교사들이 한국시가 연구에 동참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이들의 이해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으리라는 점은 그 탐구 분야가 수사법, 대구, 두운, 후렴구 등 매우 세부적인 사항에까지 미치고 있었다는 점으로부터 짐작해 볼 수 있다.

물론, 한국시가를 고찰하고자 했던 그들의 의도가 처음부터 순탄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서구인들의 주목을 받았던 중국의 한시(漢詩)나 일본의 와카(和歌)에 비해 당시까지도 한국시가는 실체 자체가 불분명하다고 흔히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한국시가[Korean poetry]는 그간 흑평을 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사망으로 기울어진 집[house inclineth unto death]”의 유혹적인 유물(遺物) 가운데 하나로 대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지체 있는 계급의 한국인들[the better class Korean]은 자신이 한국시가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다고 시인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가 몇 년 동안 [한국에 대해] 스승과 함께 공부한다 해도, 그는 한국시가라고 할 만한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권의 노래책에 적힌 다소 어려운 언어를 깊이 파고든다면 그에 해당하는 많은 사례들을 찾아내게 될 것이다.<sup>11)</sup>

「한 편의 한국시」 첫 문장에서부터 그 같은 어려움이 토로된다. 한국시가가 흑평을 받아 왔다고 한 밀러의 언급은 그때까지 한국시가에 대한 서구인들의 시각을 대략 집약해 놓은 평설이기는 하나, 조금 더 정확히 말한다면 서구인들은 한국시가에 대해 흑평을 했다고보다는 아예 한국에는 고유어로 된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정리하는 편이 보다 합당할지 모른다. 실제로 1880년대에 나온 한국 관련 저작,

---

11) Frederick S. Miller, "A Korean Poem," p. 433.

예컨대 오페르트(Ernest J. Oppert)나 그리피스(William E. Griffis)의 책에서 그러한 인식이 직접적으로 표출되거나, 1890년대에 들어 보다 진지한 자세로 한국시가를 탐색하였던 게일이나 헐버트 또한 “기존의 부정적 시각과는 달리 한국에도 시조(時調)와 같은 고유어 시가 양식이 존재한다.”라는 ‘뜻밖의’ 발견으로부터 비로소 관련 논의를 시작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sup>12)</sup>

더욱 큰 난관은 한국인들 스스로 자신들이 고유의 시가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설령 인식은 하더라도 특히 한문을 위주로 문필 활동을 하는 사대부 계층에서 그러한 고유어 시가를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사례가 흔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그리피스는 물론 후일 게일도 직접 증언하고 있는 바인데,<sup>13)</sup> 바로 그 같은 풍토 때문에 서구인들이 한국시가의 존재를 쉽게 간취하지 못하였던 사정을 밀러의 위 언급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밀러는 국권이 피탈될 위험에 처한 한국의 사정을 『성경』의 구절을 통해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sup>14)</sup> 한국의 시가 역시 패망으로 기운 나라의 유품으로 전락해 버릴 처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다른 서구인들과 마찬가지로 밀러 또한 처음부터 한국시가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특정 계기를 거쳐 한국시가를 뒤늦게야 발견해 낸 것으로 보인다. 그 계기란 위 글에서 밀러가 언급한 ‘한 권의 노래책[a book of songs]’을 통해 마련되었으리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본고의

12)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승우, 앞의 논문(2011a), 9-25쪽; 앞의 논문(2011b), 12-25쪽 참조.

13) William E. Griffis, *Corea, the Hermit Nation*, London: W. H. Allen & Co., 1882, p. 449; Esson Third, “Corean Literature,” *The North China Herald and Supreme Court and Consular Gazette* 11 Jun. 1902.

14) 위 인용에서 ‘사망으로 기울어진 집[house inclineth unto death]’이란 물론 한국을 비유하는 말이며, 이는 『성경』의 다음 구절[「잠언」 2:18]에서 인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뒷부분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한 편의 한국시」에서 밀러가 주요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작품은 가사 양식으로 지어진 「우미인가(虞美人歌)」이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우미인가」는 16세의 앳된 나이에 항우(項羽)를 만나 그의 부인이 된 우미인이 후일 유방(劉邦)에 의해 항우가 패망할 위기에 처하자 장검으로 자결을 한다는 이야기, 즉 초한고사(楚漢古事)를 담은 작품으로, 현전하는 이본이 14종에 이를 만큼 조선후기에 널리 향유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인기작이다.<sup>15)</sup>

이로 미루어 보면, 밀러가 언급한 그 '노래책'에는 「우미인가」를 비롯한 여러 가사 작품이 수록되어 있었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렇듯 '노래책', 즉 가사집을 발견하면서 한국시가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게 된 것은 게일이 19세기 시조창 가집 『남훈티평가(南薰太平歌)』를 지인으로부터 얻어 보게 되면서 시조를 최초로 영역하여 소개하고 시조의 특색에 관한 논고를 작성하여 발표했던 것과도 유사한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sup>16)</sup>

한편, 밀러가 굳이 가사를 한국시가의 대표적 형식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던 이유에 대해서도 주목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밀러 이전에 게일과 헐버트에 의해서 한국시가의 주요 갈래, 또는 '고전적[classical]' 갈래로서 시조가 이미 주목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한 편의 한국시」가 발표되었던 1903년에는 밀러가 아직 서울에 머물고 있었으므로 그가 동료 선교사인 게일이나 헐버트와 충분히 교류를 가질 만한

15) 「우미인가」의 이본 현황과 그 계열에 대해서는 손대현, 「「초한가」와 「우미인가」의 『西漢演義』 수용 양상」, 『한국민요학』 31집, 한국민요학회, 2011, 96-102쪽에서 종합적으로 정리된 바 있다. 그런데 밀러는 「한 편의 한국시」에서 「우미인가」의 원문을 한국어 텍스트 그대로 여러 곳에 인용하고 있는 바, 그 구절이 모두 일치하는 작품은 현전 이본들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때문에 그가 확인했던 '노래책'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으며, 단지 「우미인가」의 또 다른 이본이 수록된 실전 가사집이라 추정될 따름이다. 현전 이본들과 대교해 본 결과, 밀러가 그의 글에 인용한 「우미인가」와 비교적 유사한 현전본은 임기중 편, 『역대가사문학전집』 26, 아세아문화사, 1999에 수록된 제1271번 작품[임기중 소장 필사본]으로 파악된다.

16) 김승우, 앞의 논문(2011a), 20-21쪽 참조.

데다, 찬송가 제작자로서 밀러는 한국시가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그들의 논의를 어떠한 경로로든 충분히 접했을 개연성이 높다. 더구나 그가 「한 편의 한국시」를 발표한 지면이 당시 헐버트가 편집을 맡고 있었던 『코리아 리뷰』이었던 것을 보면, 밀러가 한국시가에 대한 선행 논의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글에서는 게일이나 헐버트의 논의에 대해서는 물론, 시조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는데, 아마도 밀러는 시조 각편을 온전한 의미의 '시(poem)'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추정된다. 밀러와 같은 서구인의 시각에서는 시조의 형식이 지나치게 압축적이고 소략하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작품 속에서 정작 어떠한 내용을 다루는지조차 뚜렷하게 간취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시와 와카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시가 예사 이상으로 단형이라는 점은 당시에도 서구에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그러한 함축적 성격이 독특하게 느껴질 수는 있을지언정 서구인들의 미감에 익숙하게 부합될 수 있는 요소는 아니었던 것이다. 그 같은 낯선 인상은 서구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져볼 만한 것이었으며, 앞서 헐버트는 이 문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비교적 자세히 논의한 바도 있다.

한국의 시는 모두 서정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서구의] 서사시에 대응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종달새에게 교향곡 전곡(全曲)을 노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것처럼, 아시아인들에게 역사적이거나 서사적인 이야기를 시구에 담아 표현해 주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들의 언어 자체가 그와 같은 표현 형식에 적합하지 않다. 한국의 시는 자연음을 위주로 한 것이어서 순수하고도 단조롭다. 모두가 정열적이고 감정적이며 또한 정서적이다. 개인적이거나 가정적(家庭的)인 것, 때로 사소한 문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한국의 시는 그 범위가 좁다고 할 수 있다.<sup>17)</sup>

---

17) Homer B. Hulbert, "Korean Poetry," *The Korean Repository*, Seoul: Trilingual Press, May

한국시가의 특성을 고찰하는 문맥에서 헐버트는 한국에는 서사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서정시 위주의 편제가 한국시가는 물론 아시아 시의 일반적 특성이라고 논의하였던 것이다. 역사적 사건이나 플롯이 개재된 시가를 아시아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인데, 헐버트는 이러한 사정을 한국적, 또는 아시아적 특성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 반면, 밀러는 3장 안에서 시상이 일단락되는 시조와 같은 시형을 한국시가의 대표적 양식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던 듯하다.

이러한 면, 밀러는 서구적 기준의 서사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작품 안에서 모종의 스토리가 전개되는 보다 장형의 양식을 찾아보고자 시도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러한 기준에 어느 정도 근접하는 사례로서 가사가 포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애초 밀러가 한국어 찬송가를 지어내는 데 참고로 삼고자 한국시가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매우 간략하게 시상을 마무리 짓는 시조보다는 비교적 정형화된 짜임새와 패턴이 반복되는 가사가 그러한 목적에 좀 더 부합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시조 양식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가사 양식을 축소하고 변형하여 찬송가를 짓는 데 모형으로 삼는 편이 보다 수월하기 때문이다.

초한고사라는 역사적 사건을 시화(詩化)한 「우미인가」에 밀러가 주목한 이유도 그와 같은 배경과 연관 지어 파악해 볼 수 있거니와, 결과적으로 그는 한국에서는 역사적이거나 서사적인 이야기를 시구에 담아 전달하는 방식을 기대할 수 없다고 했던 헐버트의 언급에 반례가 되는 사례를 찾아 제시하였던 셈이다.<sup>18)</sup> 그래서인지 「한 편의 한국시」에서 밀러는 「우미인가」의 서사적 구성을 단계별로 개관하고 부분부분 간략한 주석을 덧붙여가며 작품 전체의 흐름을 정리해 나간다. 가령 사면초가(四面楚歌)

---

1896, p. 206.

18) 한편, 20세기 벽두인 당시까지만 해도 시조는 대부분 가창의 방식으로 향유되었기 때문에 밀러가 시조 텍스트를 온전한 의미의, 혹은 서구적 의미의 시로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였을 여지도 있으리라 본다.

의 상황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사건은 이렇게 전개된다. 군영 위쪽에서 적이 사향곡(思鄉曲), 즉 우리의 영웅과 그 군대의 고향 노래를 연주하자, 병사들은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잎사귀”처럼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만다. (…)

|         |                             |
|---------|-----------------------------|
| 구중산김흔밤일 | 적막히누엇스니                     |
| 추풍은소소흐고 | 야월은침침흔대                     |
| 계명산츄야월에 | 옥통소슬피부니                     |
| 스향곡슬픈소릿 | 팔촌데즈훗허진다 (…) <sup>19)</sup> |

이처럼 밀러가 「우미인가」를 한국시가의 예시작으로 선정한 첫 번째 이유는 이 작품이 역사적 소재를 서사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 때문이지만, 그 밖의 또 다른 이유, 즉 내용적 차원의 이유도 추가로 발견된다. 「한 편의 한국시」 초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시가 가운데 한 가지 양식에 대한 직관은 여성의 헌신과 관련된 한 편의 시로부터 몇몇 사례를 추출하여 검토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을 듯하다. 그 시란 「우미인가」, 즉 “우미인의 노래”이다. (‘우’는 성이고, ‘미인’은 [일반명사가 아니라] 이름이다.) [작품의] 배경은 중국풍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아마도 [중국시의] 번역인 것 같기는 하지만, [작품의 형태가] 순수하게 한국적인 듯 보이는 시의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 생각되지도 않는다.<sup>20)</sup>

밀러는 「우미인가」의 배경이 비록 중국풍일지라도 시가의 형식적 측면에서 볼 때 중국시의 번역이라고만은 볼 수 없는 한국의 고유성 내지 순수성이 작품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언급하는 한편, 내용상으로는 ‘여

19) Frederick S. Miller, “A Korean Poem,” p. 435.

20) Ibid., p. 433.

성'을 주요한 요소로 부각해 내었다. 그는 「우미인가」의 주제를 집약하여 '여성의 헌신(woman's devotion)'이라 적시하면서, 이 작품을 통해 한국시가에 대한 직관(idea)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밀러는 당시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겪고 있던 억압과 폭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한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전하거니와,<sup>21)</sup> 이 작품 속에 한국인이 생각해 왔던 바람직한 여성상의 전범이 담겨 있다는 점은 그에게 더욱 주목되었으리라 보인다. 특히 밀러가 「우미인가」의 주제를 '여성의 헌신'이라 파악하였던 것과 연관 지어 볼 때, 작품의 마지막 부분, 즉 항우가 패망하기 직전 우미인이 자결하는 장면은 응당 작품 전체의 절정이라 할 만하고, 이에 대해 밀러 역시 특기하고 있다.

그리고는 비극적인 절정에 다다른다.

|          |               |
|----------|---------------|
| 우미인의겨동보쇼 | 섬섬옥수녀손길노      |
| 팔척장검붓쳐잡고 | 연연흔더모에다       |
| 의심업시찌르면서 | 대왕압해업더지니      |
| 목석인들아니올며 | 일월이무광터라 (...) |

만일 한국인에게 왜 대왕이 [자결하려는] 우미인의 목숨을 구하

---

21) 예컨대, 밀러는 다음과 같은 해학적인 글을 지어 한국 남성들이 더 이상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설득하기도 했다: “만일 우리가 어떠한 이유에 서라도 우리의 아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밥을 준비해 준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서라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거지가 바가지를 사랑하는 까닭은 그 안에 적선물을 담아 모으는 데 사용하기 때문이다. 우리 마을에 바가지를 극진히도 애지중지하는 거지가 있는데, 잠을 잘 때에도 항상 그 옆에 내려놓고 있다. 밤에 잠을 자다가 자신의 손으로 바가지를 치면, 그는 바가지를 그의 품에 끌어안고 “오! 나의 바가지여!”라고 말할 것이다.” [Frederick S. Miller, “Notes from the Chong Ju Class Conferences,” *The Korea Mission Field*, Seoul: Christian Literature Soc. of Korea, Feb. 1908, p.21] 이용민, 앞의 논문, 249쪽에서 재인용.

려 시도하지 않았는가 묻는다면, 그는 멍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뭐라고! 그렇게 되면 여인의 헌신적인 사랑을 다룬 이 아름다운 사례가 훼손되어 버리지 않소?”<sup>22)</sup>

이 부분에서 밀러는 여인의 자결이나 헌신을 아름답게 여기고 이상화하는 한국인들의 태도가 집약되어 있는 작품이 바로 「우미인가」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우미인은 한국인들의 불합리한 사고 속에서 영웅으로 추앙된 인물이었다. 반대로, 우미인의 사례를 통해 한국인들이 종래 지향해 왔던 바가 무엇인지를 간취해 낼 수 있기도 하다는 점에서 밀러는 「우미인가」를 한국시가의 대표적 사례로서 제시하였던 것이다.

### 3. 밀러의 한국시가 양식론

밀러는 한국어 찬송가를 지어내는 데 참고로 삼기 위해 한국시가를 검토하였기 때문에 시가의 내용이나 주제적 분포에 대해서는 더 이상 깊이 있게 다루지 않은 반면, 시가의 구성 요소나 형태에 대해서는 매우 진지한 고찰을 이어간다. 밀러에 앞서 게일이나 헐버트 또한 한국시가의 형태에 관해 일정 정도 관심을 두기는 하였으나, 그들이 좀 더 천착했던 부분은 한국시가의 주제나 표현 방식, 함축미 등 주로 내용적 측면에 관계된 것이었다. 게일이 시조를 처음 영역하면서 ‘효[filial piety]’, ‘인생[life]’, ‘사랑[love]’ 등 주제별로 작품을 선별하여 제시했던 것이나 헐버트가 한국시가에 ‘술노래[convivial song; drinking song]’가 특히 많다는 점을 지적했던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반면, 밀러는 한국인들이 어떠한 율조(律調)를 기저로 하여 시가를 짓고 향유해 왔는지가 주된 관심사였으며, 그 고찰의 결과를 찬송가 제작에

---

22) Frederick S. Miller, “A Korean Poem,” pp. 437-438.

직접 응용해 보려 하였으므로, 응당 형태적 측면에 주된 관심을 두게 되었었던 것이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밀러는 「우미인가」의 앞부분을 가져와 형태 분석을 시도한다.

공간과 시간적 배경에 대한 간략한 설명에 이어, 여주인공이 소개되고 [외양이] 묘사된다.

|          |          |
|----------|----------|
| 미인얼골고흘시고 | 미인티도비상하다 |
| 단청어로그려낸닷 | 백옥으로짜가낸닷 |
| 팔즈아미고흔모양 | 구름속에면산이오 |
| 록빈홍안고흔얼골 | 츄강상에반월이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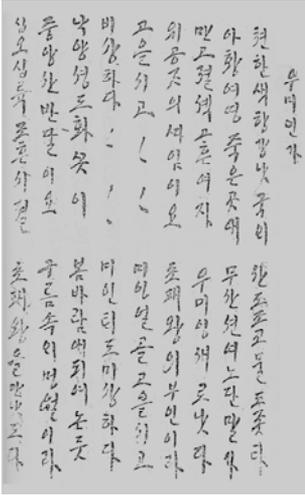
Miin ũlgol koheulsigo.  
Miin t'ädo pisang hada.  
Tanch'ungeuro keuryü nändat.  
Pägoeuro gokka nändat.

처음 녀 줄(line)을 로마자로 표기해 놓은 것을 보면, 단어들의 음색(音色)이 이따금 활용되고 조용하는 2행 연구(聯句)[couplets] 부분에서 동일 음절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간취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특징이 한국어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운(韻)을 대체한다.<sup>23)</sup>

인용 부분에서 우선 주목되는 사항은 밀러가 작품 본문을 가지런히 배열해 놓았다는 점이다. 두 음보(音步)씩 묶인 구(句)[line]를 기준으로 시행을 분단하고 두 구를 한 행에 배열하는 방식을 택하였는데, 이러한 분단이 밀러의 판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그가 보았던 가사집에 본래 이와 같은 형태로 필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추정컨대

---

23) Ibid., pp. 433-434.



[그림 1] 「우미인가」 필사본  
 [『역대가사문학전집』 #1271]

후자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한 작품 전체를 대개 줄글로 필사하는 시조와는 달리 가사의 경우 한 행에 두 구씩 필사하는 사례가 흔한 데다, 현전하는 「우미인가」 이본 14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와 같은 형태로 필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 고유의 시가 형태를 탐문했던 밀러의 입장에서는 애초부터 시행 분단이 정연하게 이루어져 있는 텍스트에 보다 주목했을 여지가 크기도 하다.

그는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을 위해 작품 원문을 로마자로 음사하였는데, 논의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 부분에서는 인용한 여덟 구 가운데 앞의 네 구만을 음사하여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밀러가 우선적으로 주목한 특징은 단어의 음색(the sounds of the words)이 활용되고 동일 음절(syllable)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이따금(occasional)’이라는 말에서도 드러나듯 두 가지 모두 한국어 시구를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눈에 띄일 만큼 흔히 발견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먼저 음색이 활용된다는 말은 ‘미인’, ‘얼굴’, ‘백옥’, ‘어로(으로)’ 등 발음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거나 밝은 느낌을 주는 단어들이 빈출한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같은 어휘들이 일상어에서보다는 노랫말에서 특히 다수 활용된다는 점을 지적한 듯하다.

보다 중요한 사항은 동일 음절의 반복이다. 무엇보다도 인용해 놓은 두 구씩을 묶어서 ‘2행 연구(couplets)’라 칭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로써 밀러는 그가 생각했던 한국의 대표적 시가, 즉 가사의 구가 둘씩 짝을 이루면서 의미가 확장되어 나간다는 사실을 도출해 내었던 것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인용 부분에서 반복된 요소는 동일 음절이기보다는 동일 어휘인데, 실제로 첫 구와 둘째 구 앞머리에서 ‘미인’이, 셋째 구와

넷째 구 중간에서 ‘어로[으로]’가, 그리고 역시 셋째, 넷째 구 마지막에서 ‘낸닷’이 각각 반복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처럼 동일 어휘가 하나의 연구 내부에서 처음, 중간, 끝 어디에서든 거듭되면서 리듬(rhythm)을 만들어내는 현상은 서구인들의 시각에 충분히 중요하게 다루어질 만한 특징이기도 하다. 서구인들이 시작법에서 필수적으로 생각하는 운[rhyme]이 한국시가에서는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되기 때문이다. 밀리는 것처럼 두 구씩 짝을 이루어 나가는 시상의 전개 방식에 대해 특히 관심을 보이면서 그 음악성[music]을 재삼 높이 평가한다.

다음과 같은 문단들[passages]에 녹아든 음악성에 주목해 보라.

츠풍은쇼쇼호고  
야월은침침흔대

Ch'up'ungeun so-so hago  
Ya wuleun ch'im-ch'im handa  
While the autumn wind was sighing, sighing.  
And the midnight moon shone dimly, dimly.

이 모든 부분으로부터 우리는 통사적 속박에 구애받지 않는 놀랍도록 자유로운 율동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한 특성을 우리의 찬송가 제작자들은 모방해 보아도 좋을 듯하다.<sup>24)</sup>

위 인용 부분에서도 역시 두 구의 동일 위치에서 ‘은’, ‘호’와 같은 음절이 반복되는 한편 양자의 통사까지도 정연하게 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거기에 더하여 밀리는 ‘쇼쇼’, ‘침침’과 같은 의성·의태어가 동일 위치

---

24) Ibid., p. 438.

에서 대를 이루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를 ‘놀랍도록 자유로운 율동’이라 평가하고 찬송가 제작자들이 그러한 특성을 모방해 볼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던 것이다.<sup>25)</sup>

연이 2행 연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행이 네 개의 강약격 율각(律脚)[trochaic feet]을 포함한다는 점은 주목된다. 이것이 한국 율문의 일반적 형식이면서 지어 내기에도 가장 쉬운 형식인 것이다. [또 한편으로] 그 같은 특징이란 한국어로 찬송가를 지어 낼 때 무척 큰 장애가 되는 것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여기에 대응될 만한 우리의 율문 【필자주: 영어 찬송가】은 모두 약강격(iambic)이기 때문이다.<sup>26)</sup>

이어지는 부분에서 밀러는 한국시가의 율격 구조를 분석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여기에 새로 도입된 단위가 연(聯)[stanza]과 율각[foot]이며, 이를 통해 보다 종합적으로 가사의 구조가 개념화되기 시작한다.<sup>27)</sup> 밀러는

---

25) 여기에서 한국시가가 “통사적 속박에 구애되지 않는다[a casting off of the bonds of syntax]”라 했던 밀러의 언급이 무슨 뜻인지는 뚜렷이 확인되지 않지만, 추정컨대 2행 연구 사이의 대칭 내지 연관을 현시하기 위해서 그 앞뒤 부분과의 통사적 연계를 일정 정도 희생한다는 의미가 아닌가 한다. 즉, 한국시가에서 보다 중시되는 것은 작품 전체의 논리적·유기적 흐름이기보다는 연구 사이의 결속이라고 밀러는 생각했던 듯하다. 한편, 한국시가에 과연 운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김대행에 의해서 진지하게 검토된 바 있다. 시구의 앞이나 뒤에 동일 어휘 또는 동일 형태소를 배치함으로써 리듬감을 생성하는 경우가 더러 발견되기는 하지만, 이는 음운(音韻)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본래적 의미의 압운(押韻)과는 물론 다른 방식이며, 운이라 지칭하기는 어려운 사례이다. 음성의 동일성이 인식되기 전에 의미의 동일성이 먼저 환기되어 음성상의 효과인 압운이 포착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대행, 「押韻論」, 김대행 편, 『운율』, 문학고지성사, 1984, 25, 33-35쪽 참조.] 한국시가에서는 동일 음절[syllable]을 반복적으로 배치하여 압운을 한다고 보았던 밀러의 견해 역시 동일 어휘나 동일 형태소의 반복을 동일 음운의 반복으로 치환하여 얻은 결론이라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26) Frederick S. Miller, “A Korean Poem,” p. 434.

27) 영시의 분석 단위인 ‘foot’은 ‘시각(詩脚)’, ‘율각’, ‘음보’ 등으로 번역되지만, 혼란을 막기 위해 밀러가 그의 글에서 사용한 ‘foot’은 모두 ‘율각’으로 옮긴다. ‘foot’ 단위가 오늘날 국문학에서 흔히 쓰이는 ‘음보’ 단위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서구시의 분석 단위에 따라 가사 역시 ‘연[stanza] → 연구[couplet] → 행[line; verse] → 율각[foot] → 음절[syllable]’의 순서로 분석한 후, 어떠한 단계를 거쳐 한 편의 가사 작품이 구성되는지를 살폈던 것이다.

먼저, 밀러의 글에서 직접 언급되고 있지는 않으나 그가 한국시가의 가장 작은 요소로 파악했던 단위는 강약의 음소(音素)를 지닌 음절이었음을 추론해 낼 수 있다. ‘강약격’ 또는 ‘약강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데에서도 확인되듯이 그는 한국시가의 율격이 영시의 스캔션(scansion) 방식에 준하여 구성된다고 생각하였다. 즉, 개별 음절의 강약이 배타적이고 규칙적으로 교차되면서 율격이 생성된다는 것인데, 그 순서는 하나의 강음절 뒤에 또 하나의 약음절이 딸리는 강약격으로 일관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그가 제시한 인용문의 첫 구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   x   /   x   /   x   /   x  
미 인 얼 골 고 흘 시 고

즉, 통사적 분단과는 무관하게 두 음절씩 묶여 율각을 형성하며, 각 율각의 앞 음절, 곧 ‘미’, ‘얼’, ‘고’, ‘시’에 강세가 놓이는 한편, 그에 뒤이어 ‘인’, ‘골’, ‘흘’, ‘고’의 무강세 음절이 각각 덧붙으면서 강약율을 완성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밀러는 이러한 강약 율각이 매 구마다 네 번 반복되는 사보격(四步格)[tetrameter]의 규칙성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논의한다.

이렇듯 한국시가의 율격 자질을 강세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는 방식은 그 적부 여부를 떠나 일단 처음으로 시도·제출된 한국시가 율격 모형이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게일과 헐버트 등 밀러 이전에 한국시가 또는 가악을 논의했던 선교사들 또한 시행의 길이나 시행의 개수 등과 같은 문제를 일부 다루기는 하였으며, 시행 내부에서 모종의 율격이 도출될 수 있다는 데로까지 논의를 확장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만 한국시가, 특히 시조를 영역하는 과정에서 영역시에 약강격의 율격

을 개재하거나 시행의 마지막 음절에 각운을 배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번역 시조를 영시와 유사한 모습으로 만들어 내는 데 주력하였을 뿐, 한국어 시구 자체에서 율격을 산정해 보려 시도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물론, 밀러가 강약의 교차에 따른 율격 모형을 제시한 것이 한국시가의 실상에 부합하는지는 비판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한국인들이 모국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강세를 변별 자질로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강세의 위치를 바꾼다고 해서 특정 어휘의 의미가 달라지거나 어색한 어감이 필수적으로 나타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 점은 밀러 자신도 어느 정도 경험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바였음을 다음 언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 찬송가를 지어내는 데 있어서 겪었던] 작지 않은 어려움은, [이 작업에 함께 참여한] 한국인 조력자 가운데 실질적으로 단 한 명도 율격에 맞게 작시하는 법에 대해 - [가장 기본적인] 약강격에 대해서조차 - 알고 있지 못했으며, 이들 사항에 대해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했다는 점이었다.<sup>28)</sup>

찬송가를 짓는 데 참여했던 한국인 조력자들은 밀러가 생각했던 율격 구조, 즉 강약율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기에 선교사들이 그 원리를 역으로 가르쳐 주어야 했다고 밀러는 회고한다. 이를테면 한국어 모국어 화자들조차 변별해 내지 못했던 강약의 교체 원리를 한국어 찬송가 가사에 새로 도입해 와야 했던 셈이다.

이로 미루어 보면 밀러는 어떤 언어로 된 시에서든 강약, 장단, 고저 등 율격을 생성하는 기본적인 음소 자질이 시구에 내재되어 있다는 전제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같은 전제 속에서 그가 익숙하게 떠올렸던 자질은 바로 영시나 독시(獨詩)의 율격 기저가 되는 강약이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다수의 전도서를 번역해 낼 만큼 한국어를 능숙하

28) Frederick S. Miller, "Early Korean Hymnology," p. 190.

게 구사했던 밀러가 한국어에서는 강세가 영어나 독일어에서만큼 필수적인 자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연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장단이나 고저에 비해 그나마 강약은 비교적 뚜렷하게 간취되기 때문에 울격을 산정하는 데에도 강약울을 도입해 왔으리라는 것이다. 한국어와 한국시가에 강세가 존재한다는 그의 이러한 견해는 찬송가 가사를 짓는 과정에 직접 적용되기도 한다.

[한국어 찬송가를 짓는 과정에서 마주치게 되는] 주요한 난관은 한국어가 약강격에 적당하지 않다는 점이다. 2음절에 강세가 오는 한국어 단어는 거의 없으며, 이 때문에 작자들은 거의 모든 행의 첫머리에 [강세가 없는] 한 음절짜리 단어를 [추가로] 배치해야 했고, [그 결과] 노래가 단조롭게 되었다.<sup>2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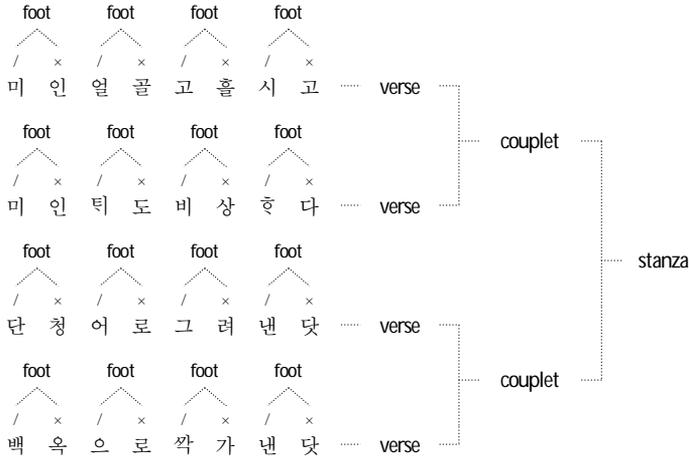
대부분의 작품이 약강격으로 되어 있는 영어 찬송가 가사에 준하여 한국어로 찬송가를 지을 때에도 역시 약강의 울격을 유지하고자 했던 당시 찬송가 제작자들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밀러는 거의 모든 한국어 단어들에 1음절에 강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작법이 용이치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약강의 울격을 현시하기 위해서는 ‘이’, ‘그’, ‘저’ 등과 같은 1음절로 된 지시어를 앞머리에 배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데, 이때 밀러가 한국어 단어를 1음절 강세 위주라 파악했던 이유는 한국어 단어가 실제로 강세를 변별적 자질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기 보다는 하나의 단어를 통상 한 호흡에 발음하는 과정에서 첫 음절이 2음절 이하 부분에 비해 좀 더 강하게 들리는 현상에 견인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sup>30)</sup>

---

29) Ibid.

30) 이와 관련하여 한국시가의 울격 구조를 여러 방식으로 모색하던 초기 국문학 연구에서도 음절의 강세에 의해서 한국시가의 울격이 생성된다는 강약울론이 제출된 바 있으며, 그때도 역시 한국어의 거의 모든 단어가 1음절에 강세를 지닌다는 음성적 경향이 그 논거로 활용되곤 하였다. 밀러의 견해와 같은 맥락이

이로써 음절 둘이 묶여 울각으로, 울각 넷이 묶여 사보격을 이루는 시행으로, 시행이 다시 둘씩 묶여 한 쌍의 연구로, 그리고 연구가 다시 묶여 하나의 연으로, 끝으로 연이 중첩되어 하나의 작품으로 확대된다는 밀러의 분석이 마무리된다.<sup>31)</sup> 이상과 같은 밀러의 용어와 분석을 종합하여 그가 예시한 「우미인가」의 일부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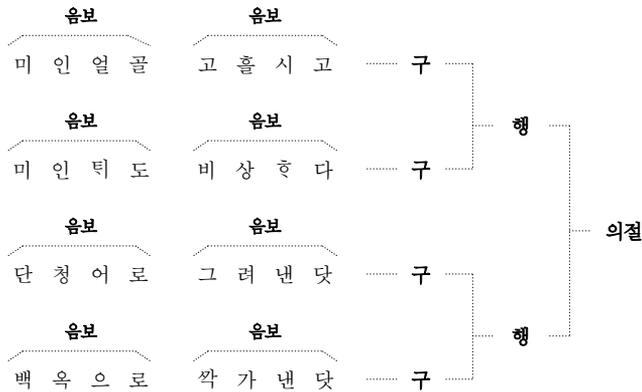


가사만을 대상으로, 그것도 「우미인가」라는 특정 작품의 일부분만을 바탕으로 진행한 고찰인 탓에 이와 같은 방식의 양식론이 한국시가 전체를 포괄하기는 애초부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에 고유의 정형 시가 양식이 존재하는지조차 아직 의문시되던 당시에 영시의 문법

다. 한국시가의 울격 구조를 강약율로 파악한 이들 1950년대 논의에 대한 소개와 비판은 김홍규, 「한국시가 울격의 이론 I: 이론적 기반의 모색」, 『민족문화연구』 13호,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1978, 104-108쪽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31) 이때 연구가 몇 개 묶여서 하나의 연이 되는지에 관해서는 뚜렷하게 밝히지 않았으나, 그가 「우미인가」 원문 가운데 네 개의 행[verse]을 가지고 분석을 한 것을 보면 통상 두 쌍의 연구, 즉 네 개의 행이 모여 한 연을 이루게 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연보다 상위 단위는 물론 한 편의 시[poem]이다. 다만, 가사가 연속체(連續體)로서 그 길이가 제각각인 만큼 몇 개의 연이 시를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는 밀러가 굳이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과 용어를 차용해서나마 것처럼 한국시가의 표준적 형태를 도출해 보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은 십분 그 의의를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물론, 다수의 연구 성과가 축적된 근래의 국문학적 견지에서 밀러의 한국시가 양식론은 초보적 수준의 논의로 비추어질 수밖에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분석이 무의미하거나 오류로 점철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도 많다. 「우미인가」의 같은 부분을 오늘날의 국문학 연구에서 흔히 통용되는 용어와 방식으로 표지한 후 양자를 비교해 보면, 밀러의 분석이 상당히 적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32)</sup>



먼저, 시가의 각 요소를 지칭하는 용어에 있어서 행[verse]은 구, 연구[couplet]는 행, 연[stanza]은 의절(義節)에 각각 대응된다. 이러한 용어상의 차이만 있을 뿐 지시하는 대상은 모두 동일하다는 점에 우선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밀러가 산정한 울각[foot] 단위와 그에 대응되는 음보 단위는 서로 다른데, 이러한 차이는 실상 한국시가의 울격을 생성하는 기저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시각차를 반영한다.

위의 도식에서 확인되듯이, 근래의 연구에서 한국시가, 적어도 고전시

32) 김문기, 「가사」, 김학동·박노준·성기옥 외, 『한국문학개론』, 새문사, 1992, 153-156쪽에 제시된 설명과 그림을 「우미인가」에 적용하여 아래에 도식한다.

가의 율격 단위로 산정하고 있는 것은 통사적 분단 단위에 간섭을 받는 단순음보이고, 음보 내에서의 음소적 자질, 예컨대 강약, 장단, 고저의 교차는 인식되지 않거나 규칙성을 지니지 않는 것으로 본다. 세계 각국 시가의 율격 모형을 크게 음량율격(Quantitative Metric Relevancy)과 음소 율격(Prosodic Metric Relevancy)으로 분단할 때 한국시가의 율격은 기본적으로 음량에 의해서 결정될 뿐, 음소적 특징은 변별적 자질을 지니지 못한다고 파악하기 때문이다.<sup>33)</sup>

이처럼 영시를 기준으로 산정된 강약을 율각은 한국어나 한국시가에 적합하게 적용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이 점에 있어서 밀러의 분석에 무리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율각 이상의 단위에서 그가 도출해 낸 규칙성은 오늘날에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만큼 정확하다.

앞서 밀러는 연결하는 두 행, 즉 두 구를 '2행 연구(couplets)'라 지칭하면서 이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연관성에 주목한 바 있다. 두 구 사이의 연관을 현시하는 요소로서 밀러가 언급한 것은 각 구의 동일 부분에서 같은 음절, 또는 어휘가 반복된다는 점이었는데, 그 같은 사례가 실제 가사 작품에서 자주 발견될 뿐 아니라, 반드시 동일 어휘가 중첩되지 않는더라도 두 구의 통사구조가 동일하거나 시상이 서로 연결되는 경우가 흔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두 개의 구를 묶어 흔히 '행' 또는 '구문(句文)'이라 지칭하거나, 밀러는 그와 같은 가사의 일반적 특성을 간파하고서 이를 영시의 용어인 '2행 연구'로 풀이해 냈던 것이다.

한편, 그의 분석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연을 상정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연에 상당하는 분단 단위를 지적한 것은 매우 눈여겨 볼만한 성과로 평가된다. 그가 '행'이나 '연구'라 지칭했던 단위들은 띄어쓰기와 행갈음의 방식을 통해 애초 필사본 자체에서 구분이 이루어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복수의 연구가 묶여 구성된다고 언급했던 연의 개념은 필사본의 형태만으로는 도출되지 않으며, 오로지 작품의 내

33) 김흥규, "A Perspective on Metric Typology and the Metric Type of Korean Verse," 『옥망과 형식의 시학』, 태학사, 1999, 297-300쪽.

용과 시상의 전개를 따져 가면서 귀납해 내야만 하기 요소이기 때문이다. 연과 연 사이에 빈 줄을 두는 서구시와 달리 가사에는 별도의 공행이 없으므로 연의 분단 단위가 표면화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가사 작품에서는 한 쌍의 행, 밀러의 지칭으로는 한 쌍의 2행 연구가 묶여 의미상의 분단을 이루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작품의 내용을 이루는 기본 단위, 즉 가소(歌素)의 기본이 되기도 한다.<sup>34)</sup> 그 같은 특성을 현시하기 위해 두 행을 묶어 '의절(意節)'이라 지칭하는 경우가 흔한데, 밀러는 것처럼 가사의 시상이 확장 또는 연쇄되는 기작을 도출하여 이를 영시의 연에 대응되는 단위로 개념화했던 것이다.<sup>35)</sup>

결국, 밀러는 구(행, verse)가 연결되어 행(연구, couplet)으로, 행이 다시 연결되어 의절(연, stanza)로 확대되면서 전개되는 가사의 기작 내지 구성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것처럼 2배수로 단위를 늘려 가는 정연한 양식적 특성을 별도의 참고 자료 없이 직관적으로 파악해 내었던 것이다. 비록 단편적인 서술로 표출되기는 하였으나, 한국시가의 양식이나 율격에 대한 초기 연구 자료로서 밀러의 언급이 주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4. 결론

이상에서 19세기 말-20세기 초에 걸쳐 활동했던 선교사 프레더릭 S. 밀러가 한국시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배경과 그가 주로 다루었던 작품의 영역, 그리고 가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한국시가 양식론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검토하였다.

---

34) 김문기, 앞의 논문, 154쪽.

35) 가령, 정철(鄭澈)의 「사미인곡(思美人曲)」[이선본(李選本)] 앞부분은 다음과 같은 방식에 따라 음보[ / ], 구[ // ], 행[ [ ] ], 의절[ 【 】 ]의 순서로 분단할 수 있다: " 【 [이몸 / 삼기실제 // 님을조차 / 삼기시니] - [혼상 / 緣分이며 // 하늘모를 / 일 이런가] 】 - 【 [나흐나 / 접어잇고 // 님흐나 / 날괴시니] - [이몸음 / 이스랑 // 견 줄터 / 노여업다] 】 - (…)"

밀러의 한국시가 연구는 작품 전반의 특성이나 갈래, 분포 등을 분석하려는 연구적 목적보다는 한국어 찬송가를 지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모색하려는 실무적 차원의 목적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속적인 고찰을 진행해 나갈 만한 추동력을 당초부터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소기의 목적에 소용될 만한 작품의 사례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한국시가의 양식과 성립 기반을 나름대로 일반화해 낼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해당 영역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때문에 한국시가와 관련된 글은 밀러가 한창 한국어 찬송가를 번역하고 새로 지어내던 시기를 지나서는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선교 대상국의 문화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전도를 가능케 하려는 목적의 일환이기는 하되 게일이나 헬버트가 한국문학 자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관찰과 연구를 진행해 나갔던 데 비해, 밀러는 선교사의 임무에 보다 충실하였으며, 한국시가에 대한 탐구 역시 선교 사업 본연의 목적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러가 가사를 한국시가의 대표적 갈래로 부각해 낸 점이나, 한국시가의 구성 원리와 요소를 정교하게 탐구하였던 점 등은 게일이나 헬버트의 저술에서는 간취되지 않는 또 다른 측면의 중요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단편적인 언술과 제약된 사례 제시, 그리고 영시의 문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고찰이기는 하지만, 그의 분석은 현대 연구자들의 견해를 방불케 할 정도로 상당 부분 적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시가의 율격 구조를 처음으로 명확하게 논리화하였던 밀러의 시도는 그 적부 여부를 차치하고서라도 연구사적 의의를 마땅히 평가해 주어야 할 것이다.

남은 과제는 밀러의 한국시가론이 그 자신이나 동료 선교사들의 작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먼저, 밀러의 논의가 자신의 찬송가 가사에 적용된 궤적을 살필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시가에 대한 밀러의 이해도가 실제 작품에 적절히 응용되었는지, 또한 그 결과물이 당대 한국어 화자의 율격 의식에 부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된다.<sup>36)</sup>

또한, 가사를 한국시가의 대표적 양식으로 적시했던 밀러의 견해는 후일 게일에 의해서 계승되는 양상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 역시 흥미로운 탐구 주제이다. 애초 시조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영역해 내기도 했던 게일은 한국어 번역 『성경』의 주요 부분을 가사 양식으로 재편하여 따로 『연경좌담(演經坐談)』이라는 문건을 출간한다.<sup>37)</sup> 게일은 한국인들이 가사의 화법과 울격에 무척 익숙하다는 점을 뒤늦게나마 발견하고서 이를 선교에 적극 활용해 보고자 의도하였던 바, 것처럼 가사의 효용을 인식하게 된 게일의 행적이 앞서 밀러의 소론과 어떻게 잇닿아 있는지를 검토하는 작업도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이들 문제는 후속 과제로 남긴다.

---

36) 이와 관련하여 밀러는 한국어 찬송가를 지어내는 데 대단히 많은 공을 들였으며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고 술회하고 있다: Frederick S. Miller, "Early Korean Hymnology," p.191. 그의 한국시가론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찬송가 제작에 활용되었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37) 게일의 『연경좌담』에 대해서는 김혜영, 「『연경좌담』에 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 석사학위논문, 2002; 김은아, 「노래 복음서 『연경좌담』에 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 석사학위논문, 2003 등에서 주로 음악적으로 검토되어 왔다. 한편, 이복규는 그 수록 작품의 문학적 형식이 가사라는 점을 밝히면서 이를 '개신교가사'라 범주화하고 그 문학사적 의의를 부각하였다: 이복규, 「개신교가사에 대하여」, 『온지논총』 28집, 온지학회, 2008.

## 1. 자료

- 이정옥 편, 『영남내방가사』 1·2·4, 국학자료원, 2003.
- 임기중 편, 『역대가사문학전집』 43, 아세아문화사, 1998.\_
- \_\_\_\_\_, 『역대가사문학전집』 15·17·26, 아세아문화사, 1999.
- Esson Third, "Corean Literature," *The North China Herald and Supreme Court and Consular Gazette*, 11 Jun. 1902.
- Gale, James S., "A Few Words on Literature," *The Korean Repository*, Seoul: Trilingual Press, Nov. 1895.
- Gale, James S. & Yi, C. C., 『演經坐談』, 京城: 朝鮮耶蘇敎書會, 1923.
- Griffis, William E., *Corea, the Hermit Nation*, London: W. H. Allen & Co., 1882.
- Hulbert, Homer B., "Korean Vocal Music," *The Korean Repository*, Seoul: Trilingual Press, Feb. 1896.
- \_\_\_\_\_, "Korean Poetry," *The Korean Repository*, Seoul: Trilingual Press, May 1896.
- Miller, Frederick S., "A Korean Poem," *The Korea Review*, Seoul: Methodist Publishing House, Oct. 1903.
- \_\_\_\_\_, "Notes from the Chong Ju Class Conferences," *The Korea Mission Field*, Seoul: Christian Literature soc. of Korea, Feb. 1908.
- \_\_\_\_\_, "Early Korean Hymnology," *The Korea Mission Field*, Seoul: Christian Literature Soc. of Korea, Sep. 1930.
- Rhodes, Harry A., "Rev. Frederick S. Miller: 1866-1937," *The Korea Mission Field*, Seoul: Christian Literature soc. of Korea, Nov. 1937.

## 2. 논저

- 김대행, 「押韻論」, 김대행 편, 『운율』, 문학과지성사, 1984.
- 김문기, 「가사」, 김학동·박노준·성기옥 외, 『한국문학개론』, 새문사, 1992.

- 김승우, 「한국시가에 대한 구한말 서양인들의 고찰과 인식 : James Scarth Gale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64호, 민족어문학회, 2011.
- \_\_\_\_\_, 「구한말 선교사 호머 헐버트(Homer B. Hulbert)의 한국시가 인식」, 『한국시가연구』 31집, 한국시가학회, 2011.
- 김은아, 「노래 북음서 『연경좌담』에 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 석사학위 논문, 2003.
- 김혜영, 「『연경좌담』에 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 석사학위논문, 2002.
- 김홍규, 「한국시가 율격의 이론 I: 이론적 기반의 모색」, 『민족문화연구』 13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78.
- \_\_\_\_\_, “A Perspective on Metric Typology and the Metric Type of Korean Verse,” 『욕망과 형식의 시학』, 태학사, 1999.
- 문옥배, 『한국 찬송가 100년사』, 예술, 2002.
- 민경배, 『한국교회 찬송가사』, 연세대 출판부, 1997.
- 손대현, 「「초한가」와 「우미인가」의 『西漢演義』 수용 양상」, 『한국민요학』 31집, 한국민요학회, 2011.
- \_\_\_\_\_, 「「우미인가」의 서술 양상과 수용 의식」, 『어문학』 115집, 한국어문학회, 2012.
- 이복규, 「개신교가사에 대하여」, 『온지논총』 28집, 온지학회, 2008.
- 이상현, 「제임스 게일(James Scarth Gale)의 한국학 연구와 고전서사의 번역: 게일 한국학 단행본 출판의 변모와 필기, 야담, 고소설의 번역」,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9.
- 이용민, 「선교사 Frederick S. Miller(閔老雅, 1866-1937) 연구: *The Korea Mission Field*를 중심으로」, 『교회사학』 5권 1호, 한국기독교회사학회, 2006.
- 정한기, 「「초한가」와 「우미인가」의 작품내적 특징과 역사적 전개」, 『배달말』 36호, 배달말학회, 2005.

〈ABSTRACT〉

## A Study on Missionary Rev. Frederick S. Miller's Perceptions of Korean Poetry

Seung-u Kim  
(Korea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perceptions of Rev. Frederick Scheiblin Miller(Korean name: Min Roa(閔老雅))[1866-1937] on Korean poetry. Miller was a missionary who did missionary work from the late 19th to the early 20th century in Korea. In this writing, his discussions about Korean poetry and its academic significance will be examined.

Miller was interested in propagation of Korean hymns. To write lyrics which harmonize with Korean sentiment and rules of versification, he selected feature poems and started analyzing them. He suggested *Gasa*(歌辭) as a representative form of Korean poetry while James S. Gale and Homer B. Hulbert, who have studied Korean poetry a few years prior to Miller, relatively paid more attention to *Sijo*(時調). His opinion seemed to be based on the idea that *Gasa* which develop certain story corresponds with western notion of poetry than *Sijo* does.

Miller analyzed Korean poetry intuitively even without any help of references. His analysis suggests that the couplet is made of a pair of verses, and the stanza is made of a pair of couplets. In other words, expansion was the gist of composition principle of *Gasa*. Also, he conceptualized the versification structure of Korean poetry. According to him, the composition principle of Korean poetry is not only trochaic which a stressed syllable and

an unstressed syllable cross alternately, but also tetrameter which feet are repeated four times every verse.

Miller's study of Korean poetry lacked scholarly impetus for the successional researches from the beginning since its ultimate aim was to support writing Korean hymns. However, unlike Gale and Hulbert, Miller highlighted *Gasa* as a representative genre of Korean poetry, inquired composition principle and elements of Korean poetry exquisitely, and organized the rules of versification in Korean poetry for the first time. These achievements made his writings acquire a certain level of importance which has not been found in the preceding studies.

**Keywords** : Frederick S. Miller, Korean poetry, missionary, *Gasa*, hymnology, metre, James. S. Gale, Homer B. Hulbert

논문접수일 : 3.15. / 심사기간 : 3.16-4.5. / 게재확정일 : 4.10.